

# 이익공유제, 대기업 참여 “빨간불”

## 1월17일 동반성장위 회의에 대기업 불참 ... 데스크탑PC 선정 논의

동반성장위원회 회의에 대기업 측 위원이 모두 불참했다.

동반위는 12월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도입을 반대한 대기업 측 대표들이 모두 본회의 참석을 거부하자 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로 심의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결론을 짓기로 함에 따라 1월17일 2012년 제1차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대기업 측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하고 나머지 16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의 보이콧은 사회적 책임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포함한 대기업이 동반위 논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고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무수히 밝혔는데도 대기업은 검토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전경련과 대기업이 한국 사회의 리더 그룹으로써 책임질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동반위는 1월17일 회의를 통해 데스크탑PC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와 함께 창조적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17>